반어와 역설

뜨거운 안녕, 오래된 미래 기묘한 부조화,

일상에서 사용되는 아이러니 :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 작품에서의 분위기를 담당하는 것들 역설적,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일상어에서는 활용됨

반어는 아이러니의 번역어, 하지만 동일하지 않음, 반어는 말의 층위에서 활용됨, 인식의 층위에서 아이러니는 나란히 두기 어색한 것들을 아이러니라고 함

시 전체의 구조적 층위에서 오는 경우에는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게 느껴짐

극적 아이러니 :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제목이 반어적 뉘앙스, 예상되는 일과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

냉철하고 이지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른 류의 충동, 리비도가 있는 것 등

(비극적) 오이디푸스 이야기 : 인간의 의지로 식별하지못하는 가혹한 운명, 피하고 싶었던 운명 때문에, 피하고자 하던 운명을 피하고자 했던 여정 때문에 목도하게 되는 것이 아이러니, 자신의 삶을 알아가기 위해 찾아가는 여정이 강렬하게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류의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모티브

근대인이 가지고 있는 낭만적인 아이러니: 마블 코믹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리자드맨의 손이 피터 파커를 구함, 리자드맨과 삼촌으로서의 인간성이 충돌하는 장면, 근대 이전의 가치 충돌은 일변적인 가치의 충돌이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았는데 근대 이후 낭만주의 형태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남아 있음, 거대한 가치의 충돌과 인간의 기본적인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주임, 현실과 이상, 신성과 세속적인 것, 감성과 이성의 충돌 등이 낭만적 아이러니의 예시

->아이러니는 세계를 인식하는 층위로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음, 아리스토텔레스, 진실한 인간은 이데아, 도달할 수 없음, 기만적인 인간은 실제보다 이상의 존재로 가장하는 인간, 실제보다 낮춰말하는 인간임, 강자지만 우둔하고, 약자지만 현명함, 약자가 강자를 물리치는 고대그리스의 아이러니,

아이러니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과 이면적 해석이 달라 시각을 이중화하는 형식

김광규 묘비명, 표면적 이면적 차이, 확고한 가치를 의심해본 적이 없는 사람, 의심하게 됨, 모든 가치가 가치가 없어지는 표면적 휼룽한 가치ㅇ를 의심하게 됨, 물질적 가치만 팽배한 곳에서 그와 다른 것들을 꿈꾸는 시인은 무엇을 가치라고 남길 것인가, 다른 류의 어조를 사용. 끝 두 줄을 제외한 나머지 행이 다 반어임

역설과 반어의 구분 : 본래적인 의도와 표현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이러니, 역설은 진술 자체가 모순이면서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고등학교에서 배운 것),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김소월, 님의 말씀 같은 경우는 표층적 측면에서의 반어와 역설이 쉽게 구분이 가능함 : 논리상 모순이 보이는 구절,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말, 삶과 죽음의 형태가 대조적으로 나타남, 님의 말씀이 나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처음과 끝에 반복됨) 모순되는 형용이 쉽게 읽힘, 역설 찾을 수 있음

-김소월, 진달래꽃은 쉽게 구분할 수 없음, : 표면과 다른 심리 상태에 모순->아이러니이다./이별의 순간 가정하고 있음, 실제가 아님, 의심하게 되는 순간, 한없는 자기불신, 의지의 표현인가, 나 자신에 대한 패배감인가, 자기자신을 낮춰 생각하는 열등감, 자기 우월감의 발언이기도 함, 심리적 상태에서 나오는 양가적인 감정임, 의지하고자 하는 감정과 자기 스스로를 추스르고자 하는 감정과 나에 대한 불신, 님에 대한 불신이 충돌 /내면의 갈등, 양면성을 역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함-구조적 반어라고 보기도 하고 시적 역설이라고 보기도 함

=>반어와 역설의 구분은 손쉬운 일이 아니다

-이상 이런 시: 작문의 내용과 나머지 앞뒤 것들이 반어적임, 아이러니는 시의 구조가 이질적일 때 느껴지기도 함, 시적 구조로서의 아이러니/반어

반어는 주체의 분열에 붙여진 이름이다. 질서 이면의 것들을 읽을 수 있다. 다른 방식의 어조

김선우, 봄날 오후: 시적 대상을 보는 사람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봄, 대상을 달리 보고 아름답게 표현함, 늙음이 낭만과 무관하지 않다고 읽힘, 주체가 대상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간극이 있음, 주체의 미묘한 우월감이 드러남, 젊은 나는 이들의 늙음고 ㅏ낡음이 안됐다는 것이 드러남, 근본적으로 이 늙음을 바라보는 연민이 동시에 존재함

찢어지다, 또 찢어지다-서울, 고형렬: 어던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서울로 읽으면, 여기저기 휘둘리고, 계속해서 비굴하게 살았다는 것, 미세먼지를 기침으로, 환경오염, 도시의 운명처럼 찢어진다, : 시적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읽냐, 이중,삼중으로 얽힌 시선으로 본다.

송경동, 혜화경찰서에서 : 풍선이나 불었으면 좋겠다,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함, 말장난 사용,

아이러니의 유형 : 언어적 아이러니/구조적 아이러니, 내적 진술/외적 맥락

-> 모순 형용-이미지와 비유 차원의 긴장, 나란히 두면 미묘한 긴장을 두는 것, 김수영, 푸른 하늘을, 이미지와 비유가 상이한 경우, 자유와 피, 혁명과 고독 극적 전환-사건과 구조 차원의 반전, 운수좋은날, 최승자 꿈꿀 수 없는 날의 답답함: 반전, 끊임없는 우울함과 절망감이 드러남,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음, 떨어지지도 못하는 극적인 반적, 우울과 절망마저도 온전하게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답답함

반대진술-어조와 화법 차원의 대조, 표면적 해석과 이면적 해석의 아이러니, 아이들은 먼 것을 보기를 좋아한다, 황지우, tv를 선하고 있다(불교에서 말하는 참선), 밀접한 거리감인데도 먼 것을 보기 좋아한다고 표현한 것은 언어적 아이러니 + 금지의 언어가 선하다고 바뀜, 못 보는 걸 보다는 뜻, telel는 멀다는 뜻vision은 비전, 금지하는 어른들의 시선들과 다르게 아이들은 그것을 선하고 있고 먼 것들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볼 수도 있다.

시적진실-의미와 인식 차원의 역설, 한용운의 모순: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 동시에 존재, 긍정에서 부정을 뽑기도 하고 부정에서 긍정을 뽑기도 함, 모순은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완전한 합리성만을 찾는 것이 인간 삶이라면 인간 존재 자체가 아이러니이다.

오규원, 문 : 문과 담(벽), 모순 형용, 문의 속성과 다른 점을 보여줌, 이중적 측면과 계속해서 진술을 배반하고 반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전개됨, 문이 없고 결국 벽만 있다는 결론, 변증법적인 관계인 것 같지만 그것을 넘어서 다른 차원의 더 큰 벽이 된다는 것으로 구조적 측면이 아이러니가 되기도 함, 소통의 부재가 범람함

임솔아, 티브이: 타인의 불행은 멀게 느껴짐, 인용되는 것일 뿐, 스스로를 분리할 수 있는 안전한 것이라고 읽힘,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티비라는 공간과 현실에서 그것을 보는 두 공간이 있음, 불쑥 내가 티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있음,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음, 온전하게 같은 세계관을 통해 교감하고 연대했으면 좋겠다, 불가능한 소망, 내 삶의 근간을 흔드는 일, 티비는 나에게 현실을 알려주지만 이 자체는 온전하게 현실을 전달할 수없음, 현실을 왜곡해서 전달함, 내 공간이 지극히 사적이라는 것, 누군가를 알고 싶다는 가능성, 역설적으로 티비를 통해서 티비 너머에서 전달되기도 함, 파편화된 자의식이 드러남, 구조적 측변의 반어